

승무·정비·관제·조정 등 현장채용도... '꿈의 날개' 활짝

크포 | 2018 항공산업취업박람회 가보니

“진로 고민을 덜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 박람회를 통해 항공정비사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학습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 같다.”

6일 '2018 항공산업 취업박람회'에서 만난 인천 정석항공과학교등학교 2학년 김성원(18)군의 말이다. 김 군은 “이번 박람회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18 항공산업 취업박람회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항공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다. 올 하반기 1000명 규모의 정규직을 채용하는 항공 관련 기업 56개사가 참가해 채용상담과 현장채용 등을 오는 7일까지 진행한다. 채용직종은 객실승무, 조종, 관제, 운항 및 지상 사무직, 제작·정비, 공항운영, 항공보안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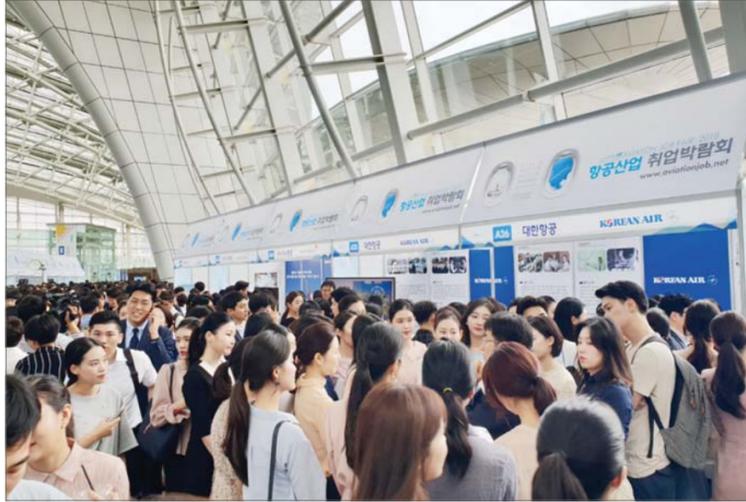
박람회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공공기관과 대한항공, 아시아

인천공항공사·국적항공사 등 1000명 채용예정 기업 56곳 참가 취업준비생·학생 등 인산인해 '스마트 항공 전시관'도 볼거리

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등 국적항공사가 참가했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 교통센터에 위치한 박람회장은 학생들과 취업준비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복도를 사이에 두고 양 옆에 배치된 항공사 부스 앞은 취업상담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학생들로 줄이 형성돼 그 열기를 더했다.

이스타항공 부스 앞에 줄을 서 있던 A(21)씨는 “평소 취업과 관련해 알고 싶은 것들이 많았다”며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지 궁금증이 풀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6일 '2018 항공산업 취업박람회'를 찾은 참가자들이 대한항공 상담부스 앞에서 인사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인산인해를 이룬 박람회장 안 쪽으로 들어가자 잠시 숨을 돌리고 있는 학생들이 눈에 띄었다.

대한항공 부스 옆 의자에 앉아 쉬고 있던 인하공업전문대학교 2학년 B(21)씨는

“객실승무원을 준비 중이다. 항공사 임원분들과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고, 취업시준인데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고 답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기자의 질문에 밝게 웃으며 대답하는 그

의 표정에서 자신감과 여유가 느껴졌다.

또다른 취업준비생 C(21)씨는 “승객들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승무원이 되겠다. 승객들과 편안하고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승무원이 되고 싶다”며 자신의 포부를 나타냈다.

인사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나오던 객실승무원 지망생 D(22)씨는 “이미지와 학점, 토익성적을 주로 요구하는 것 같다”며 “취업준비생으로서 관계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박람회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개막식에 참석해 항공사 취업준비생들을 격려했다.

2018 항공산업 취업박람회는 취업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4차산업기반 스마트 항공 전시관'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우주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항공우주제작산업(KA1)가 참여해 4차산업 기반 항공우주 발전상을 오는 10월 9일까지 전시할 예정이다. /글·사진=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10대 기업 하반기 공채 키워드는? 상식 대신 직무검증·AI 전형

대기업 신입 공채에서 한국사 등 인문 소양이나 상식 평가가 줄고, 대신 직무검증과 AI(인공지능)채용이 확산되고 있다. 탈스펙 바람도 불고 있지만, 학점이나 전공 어학평가는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인크루트와 재계에 따르면, 삼성, LG, 현대자동차, CJ, SK, 한화, 롯데, 포스코, GS, 현대중공업 등 10대 그룹의 2018 하반기 대졸신입 공채 모집이 진행된다.

삼성 상반기부터 상식 영역 폐지 **LG그룹** R&D 등서 직무지필시험 **기아차** 업계 첫 'AI 자소서 분석' **롯데** AI서류전형 전 계열사 도입 **CJ그룹** AI 챗봇 도우미 서비스

우선 지난 5일 전자계열 하반기 공채접수를 시작한 삼성은 6일과 7일에 걸쳐 나머지 계열사별 서류모집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열사별 모집으로 돌아선 삼성은 올해 상반기엔 인적성에서 상식 영역을 폐지했다. 또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일괄적으로 직무검증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3일부터 계열사별 채용을 진행 중인 LG그룹은 R&D 외 4개 직무에서 인적성검사와 별도로 직무지필시험을 통해 기본적인 직무능력을 갖췄는지 평가한다. 올해 LG인적성검사는 내달 13일 실시된다. LG상사는 상경, 이공, 인문, 어문 계열 관련전공자 중 평균 4.5점 만점에 3.0점 이상의 학점을 요구하고 어학성적 보유도 필수다. LG전자의 세일즈, 해외영업, 파이낸스, IT직무 지원자는 토익 기준 700점 이상만 지원할 수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현대자동차 공채를 시작한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미 상반기 인적성(HMAT)에서 역사에세이를 없앴다. 하반기 인적성검사는 내달 6일 일괄 치러진다. 일부 계열사(현대제철, 현대모비스, 현대엔지니어링)는 공인 어학성적을 필수로 요구한다. 기아자동차의 경우 하반기 공채에서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자기소개서 분석 지원 시스템을 업계 첫 도입했다. 동일 문장 반복이나 타사 지원 자기소개서 등을 그대로 활용한 지원자를 식별하고 자기소개서 내 지원자 특유 문장 확인, 지원자 성향에 따른 직무 적합도도 판별한다.

롯데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서류전형에 AI를 활용한다. AI가 자기소개서를 보고 지원자가 조직과 직무에 적합한지를 평가한다. 상반기엔 5개 계열사에서 시험 실시했지만 하반기엔 전 계열사에 도입한다. 조직·직무적합도검사 L-T AB은 내달 27일 치러진다. 이어 전체 지원자가 필수로 응시하는 역량면접이 진행되고, GD(그룹토론)·PT(임원·외국어 전형)은 계열사별 상이하다.

CJ그룹도 CJ제일제당 등 8개 주요 계열사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시작하고 서류 접수에 처음으로 AI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업계 처음으로 AI챗봇 서비스를 선보인다. 입사 지원자들은 CJ그룹 채용 홈페이지나 모바일 홈페이지에 CJ 지원자 도우미 챗봇 서비스를 이용하면 24시간 실시간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내달 14일 치러지는 인적성에서는 인문소양 영역이 제외된다.

17일까지 서류접수를 진행하는 포스코는 학교성과와 어학점수를 요구한다. 성적은 4.5점 만점에 3.0점 이상, 어학은 이공계의 경우 토익스피킹 110점 또는 OPIc II 이상, 인문사회계는 150점 또는 IM 3이상인자에 한한다. 필기 적성검사에서 경제·경영·포스코상식 등에서 상식영역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특징이다. 면접은 직무역량평가와 가치적합성평가가 2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올 하반기에 4500명을 뽑는 SK그룹은 부문별 지원자격과 직무 관련 내용이 상이하다. 다만 서류전형 이후 내달 14일 치러지는 필기 전형(SKCT)에서는 지원자 부담을 덜기 위해 역사역량(한국사) 영역을 빼기로 했다.

한화그룹 경우 한화토탈은 학교성적 4.5점 만점에 3.0점 이상과 어학성적(OPIc 또는 토익스피킹)을 요구한다. /한용수 기자 hys@

“수시 수능최저 점검하고 합격선 파악해야”

(전년도 내신)

메트로가 꼭 짚는 대입전략

⑭ 9월 모의평가 이후 전략

10일부터 수시 원서접수 스타트 수시·정시 포트폴리오 만들어야

오는 10일부터 2019학년도 수시원서접수가 시작된다. 수시지원에 앞서 최종적으로 점검할 포인트로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난 5월 실시된 모의평가 성적이다. 9월 모의평가는 응시집단이 수능과 가장 유사한 모의고사이므로 자신이 수능에서 받을 수 있는 점수를 객관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시험이다. 우선 9월 모평 가채점 성적을 토대로 수능최저 충족여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수능에 강점이 있는 경우에는 수능최저를 적용하는 전형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이 때 9월 모평성적을 기준으로 수능최저 충족이 적절하게 가능한 경우, 성적이 향상되면 충족이 가능한 경우, 마지막으로 실제 수능성적이 9월 모평 성적보다 약간 저조하게 나오더라도 충족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 다양한 경



김명찬 종로학원 학력평가연구소장

우의 수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합을 찾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9월 모의평가까지 포함한 모의고사 성적과 3학기 1학기까지 포함한 내신성적을 비교해 본인이 수능과 내신 중 어느 쪽에 강점이 있는지 분석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내신 쪽에 강점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에 집중하는 전략, 반대로 수능 쪽에 강점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와 정시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전략이 좋다. 수시에 집중하는 경우, 상향, 적정, 안전지원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반대로 수능에 강점이 있어 정시를 비중있게 고려하는 경우, 수시에서는 상향지원 위주로 지원하

고 6회 지원 중 1-2곳에서 안전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면접이나 논술과 같은 대학별고사를 실시하고 그 날짜가 수능 이후라면 자신의 수능성적에 따라 선택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가진 전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대다수 대학에서 내신성적 기준 합격선을 발표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다만 모집인원 변화, 전형 방법 변화, 수능최저 완화 또는 강화 등과 같은 변수가 있다면 합격선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년 대비 변동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

수시는 6회 지원으로 3회의 지원 기회가 있는 정시에 비해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높다. 따라서 수시에서는 정시에 비해 경쟁률이 당락이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경쟁률이 전년 대비 높아질 경우 합격선도 높아질 수 있으므로 경쟁률 추이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논술전형이나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는 경쟁률에 따라 지원학과를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전공적합성이 중요하므로 지원학과 변경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대학가 소식

이화여대 국양 교수 석좌교수로 초빙

이화여자대학교는 양자나노과학연구소(소장 안드레아스 하인리히)가 국양전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를 석좌교수(사진)로 초빙했다고 6일 밝혔다.

국 교수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AT&T벨연구소에서 10년, 서울대에서 27년 등 40년간 양자나노분야를 연구했다.



세종대 '밀바닥에서' 공연 개막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호)는 송현옥 영화예술학과 교수가 연출한 연극 '밀바닥에서' (극단 물결)가 6일~9일까지 동덕여대 공연예술센터에서 막이 오른다고 6일 밝혔다. 공연은 평일 오후 8시, 토요일과 일요일엔 오후 4시와 7시 열린다.

'밀바닥에서'는 러시아 작가 막심 고리키의 희곡 '밀바닥에서'를 각색한 연극으로, 찌들어가는 삶의 길목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연극은 소외된 사람들의 어려움에 국한되지 않고,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보편적인 내용을 실존상황으로 시각을 넓혀 재조명한 작품이다.

아주자동차대 '벤츠 모바일아카데미' 개강

아주자동차대학(총장 박병완)은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가 지원하는 '메르세데스-벤츠 모바일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지난 5일 재학생 설명회를 시작으로 2018년 가을학기를 개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우수한 기술력과 글로벌 교육 노하우를 국내 대학 자동차학과 학생들에게 직접 교육함으로써, 학생들이 자동차분야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이다. /한용수 기자